

한미 FTA가 불신받는 이유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유병규

한국 사회가 또 다시 양분되어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미 FTA 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난 한주간 동안 서울 중심가는 이를 둘러싼 찬반 시위로 혼잡이 극치에 달하였다. 한미 FTA는 세계 최대이자 최고의 경제 선진국인 미국과 경제 통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를 통해 광대한 시장을 확보하게 되고, 선진 제도와 기술을 보다 원활하게 유입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이익이 자못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21세기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 각국의 국경이 허물어지는 세계화인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 때문에 국내 경제가 갑자기 개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차피 한국 경제는 세계화의 물결에 휩쓸려 시장 개방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에 대한 극단적인 반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단일한 협상 과정에서 주요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우선 한미 FTA 협상이 국가 이익을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인 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정부가 이를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떠나, 협상 개시 선언 하루 전날에 요식 행위로 공청회를 해치우려 했던 것은 농민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소외감과 공분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위원회 정권이 라 불리울 정도로 각 국정 현안에 위원회 설치하기를 좋아하는 참여 정부가, 한미 FTA에 관해서는 그 흔한 위원회 하나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정부의 준비 부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처음부터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준 것도 불신을 키웠다. 미국이 정한 협상 시한 내에 무조건 타결해야만 되는 것처럼 정부는 협상 시작부터 조바심을 드러냈다. 그 결과 한국이 미국의 협상안대로 끌려가는 졸속 협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우리 사회에 증폭된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의 실익과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한 것도 큰 실책이다. 더욱이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적 실익은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선진화 등 매우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이 강하여 국민들의 생활 경제와는 거리가 먼 얘기처럼 들린다. 이에 반해 이를 반대하는 근거는 농민, 중소기업 종사자와 같은 경제적 약자들의 실업과 생존 기반 상실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서 여론의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정부는 처음부터 한미 FTA가 성사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적어도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협상 전략과 정책 대안이 있음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에게 만이라도 명확히 전달했다더라면, 한미 FTA를 둘러싼 불필요한 염려와 갈등을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정부 내에서 협상 포기론까지 불거져 정부가 한미 FTA를 성사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미 FTA가 국가적 이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한다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협상 타결 의지를 분명히 하고 대내외 협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우선 미국과의 대외 협상뿐만 아니라 국내 이해 당사자들과의 대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미국에게는 국내 반대 여론을 배경으로 한국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구 사항과 수용 범위 그리고 개방 시기 등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국내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업계 대표들과 한미 FTA로 인한 득실을 서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 대안과 국내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찾아야 한다. 특히 반대론 때문에 협상이 안된다는 푸념보다는 이를 협상력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는 21세기 한국 경제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계기를 만드는 역사적이고 중차대한 경제 전략 중의 하나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마련이다. 협상단들은 한국 경제의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지니고 대내외 협상에 임했으면 한다.